



한살림연합에서 마련한 요리강좌에서 수강생들이 요리수업을 받고 있다.

한살림연합 제공

## 집밥, 우리 농어촌 살리는 길

한살림연합 요리강좌로 농촌상생 나서

최근 웰빙과 집밥 열풍을 타고 요리강좌가 시민들에게 인기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연합에서도 다양한 요리강좌를 열어 농어촌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살림연합은 오는 11월까지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과 함께 '생명가득 식재료와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차림' 프로그램을 마련해 요리

강좌와 함께 국산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홍보에 나선다.

행복밥상은 참여자들이 '요리'라는 과정이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된다. 참여자들은 자연을 살려내고 계절의 맛을 담은 친환경 농산물 이야기를 들으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생명가치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실습 요리 또한 자연과 먹거리의 이야기에 맞춰 준비된다. 산나물 무침, 감자수제비산나물 파스타, 우리 보리를 먹여 생산한 돼지를 사용한 국밥, 뿌리·껍질까지 모두 활용하는 마크로비오틱 요리, 오랫동안 우리 땅을 지켜온 토종 농산물을 활용한 밥상차림 등이다.

제철에 더 맛있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잘 알릴 수 있는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했다.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의 저자 박찬일 셰프, 친환경 농산물로 한식을 만드는 레스토랑 '한상'의 우경식 셰프, 무형문화재 조선왕조궁중음식 궁중병과 기능보유자인 정길자 궁중음식연구원 교수 등이다.

이효선 기자 geschaff.a@

## 집주인 임대주택 용자 한도 최대 1억원 상향

용자형 신설 및 금액 및 한도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용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용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용자가 불가능했다. 개량 외의 비용도 용자가 가능한 용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용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용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용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용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용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해당 용자한도로 인해 용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용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해당 용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용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유형의 용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도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민 주거복지 강화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도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또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유영재 기자 jae-63@



사진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사업이 수년째 정체된 울산시 중구 반구동 내황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모습. 노후한 주택들로 밀집돼 있다.

## 이스트랑 카톡 친구 맺고 선물 받아주세요

큐모터스 카카오플러스 오픈 이벤트  
주요상품권 및 여행 캐리어 경품 증정

일본 상용차 제조업체 이스트(ISUZU)의 국내 공식 판매사인 큐모터스(대표이사 김석주)가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해 카카오플러스친구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스트 트럭 카카오플러스친구 오픈 이벤트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이스트트럭'을 검색해 친구로 추가하고 1대 1 채팅창에 '응모합니다'라는 문구와 휴대폰 번호 뒤 4자리를 남기면 응모가 완료된다. 기존 '이스트트럭'을 친구로 추가한 고객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등부터 4등까지

총 76명을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과 이스트 브랜드 여행 캐리어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통지 및 '이스트트럭' 카카오플러스친구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벤트를 통해 큐모터스는 이스트트럭 카카오플러스 계정을 알리고 새로운 잠재 고객층을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엘프 트럭 관리법과 기술 설명 등 정보를 전달하며 고객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 인터뷰 및 이스트 글로벌 뉴스를 소개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스트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큐모터스는 작년 9월 3.5톤급 엘프 트럭을 국내에 공식 출시하며 중형급 트럭 시장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또 순회전시,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고객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진 기자 neunga@

## 강릉시, 1313억원 채무 모두 '상환'

효율적 재정 운용 및 경기활성화로 달성  
빛 없는 올림픽·선택 집중통해 미래 투자

강원도 강릉시(시장 최명희)가 2006년 말 1313억에 달했던 채무를 15일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인 강릉시가 올림픽을 치르고도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시에 따르면 빛을 잃으면서도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 복지, 교육, 환경 관련 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하면서 채무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면서 빚만 갚아온 것이 아니라 미래 강릉 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과감히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경기 활성화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비롯한 관련 사업에



2006년 1313억원이었던 강릉시 채무액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올해 0원이 됐다. 이미지는 채무액 변화 그래프. 강릉시청 제공

시비 총 2073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것은 강릉시 재정의 건전성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재정의 건전성·유연성을 확보하며 앞으로 중요 사업 추진과 재난재해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홍인조 사무원

# 불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산다

World Top 3  
**Cho Jung**  
ORIGIN OF SPARKLING WATER

초정탄산수  
500 mL(0 kcal)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 세계 3대 광천수 초정리 광천수 · 대한민국 최초 탄산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재 · 세종대왕이 사랑한 물